

극단 백수광부 30주년 기념공연의 시작, 연극 <국어의시간> 5월 재공연

— 전막 일본어로 마주하는 식민지의 교실, 스승의 날 첫 공연



극단 백수광부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기념 레퍼토리의 첫 작품으로 연극 <국어의시간>을 오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CKL 스테이지에서 재공연한다. 지난해 전막 일본어라는 형식과 밀도 높은 주제의식으로 주목받은 작품으로, 한층 정교해진 무대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국어의시간>은 일제강점기 경성의 한 소학교를 배경으로,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쳐야 했던 조선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권력과 질서, 개인의 생존과 맞닿아 있었던 시대를 조명하며,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복합적인 인간 군상을 펼쳐낸다.



특히 이 작품은 전막 일본어로 진행되는 형식을 택한다. 관객은 한국어 자막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게 되며, 익숙하지 않은 언어 속에서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을 따라가야 한다. 이는 당시의 언어 환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장치로, 낯섦과 불편함을 통해 오히려 작품의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배우들은 일본어 대사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발음, 억양, 호흡, 감정까지 함께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무대 위에서 언어와 감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작품 특유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작품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기보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쌓아 올린다. 일본어를 받아들이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려는 사람,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까지—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통과해 간 인물들이 교차한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을 건넨다.



이번 공연은 5 월이라는 시기와의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첫 공연일인 5 월 15 일은 스승의 날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학교'와 '교사'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작품 속 교사들은 언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시대가 요구한 언어를 전달해야 했던 인물들이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와 별개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지점은 교육과 언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작품이 다루는 문제의식을 현재의 관점에서도 환기시킨다.

극단 백수광부는 1996 년 창단 이후 공동창작과 문학적 텍스트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온 극단으로, 30 주년을 맞아 <국어의시간>을 시작으로 <다 내 아이들>, <굿모닝? 체홉>, <화염>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공연 개요

- 공연명: 국어의시간 (國語の時間)
- 공연기간: 2026년 5월 15일(금) ~ 5월 24일(일)
- 공연장소: CKL 스테이지
- 공연시간: 화-금 19:00 / 토-일 15:00
- 러닝타임: 165분(인터미션 15분 포함)
- 관람연령: 만 8세 이상
- 티켓가격: 40,000 원
- 예매: NOL 티켓

■ 주요 특징

- 전막 일본어 공연 (한국어 자막 제공)
- 일제강점기 교실을 배경으로 한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 관객 해석을 유도하는 열린 구조의 서사

■ 창작진

- 작: 오리 키요시
- 번역: 린다전
- 연출: 하동기
- 출연: 권다솔, 김두은, 린다전, 박제훈, 서별, 송유준, 이산호, 이하늘, 최줄리, 홍민국, 홍상용
- 드라마터그: 배선애
- 무대: 주미영 / 조명: 신동선 / 의상: 박인선
- 음악: 김선 / 영상: 강경호 / 분장: 장경숙
- 그래픽: 최희연 / 사진: 윤헌태
- 기획: 노혜준
- 조연출: 황윤진, 안시연
- 무대감독: 심태연

■ 2026 극단 백수광부 30주년 기념 공연 일정

<국어의시간> 5.15 ~ 5.24 / 오리 키요시 작 / 하동기 연출

<다 내 아이들> 8.21 ~ 8.30 / 아서 밀러 작 / 이성열 연출



문의 극단 백수광부 02-813-1674

<굿모닝?체홉> 10.9 ~ 10.18 / 공동창작, 안톤 체홉 원작 / 하동기 연출

<화염> 11.14 ~ 12.6 / 와즈디 무아워드 작 / 이성열 연출

<문의>

- 극단 백수광부 02-813-1674
- 담당자 노혜준 010-6381-6170 hjhjoon83@gmail.com
- baeksu96@hanmail.net
- www.baeksukwangbu.com
- Instagram: @baeksutheater